

간

담

회



종오리 쿼터제 시행과 개량 농림부 / 협회 / 영국육종회사

본회는 지난 3월7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축산경영과
조병임사무관, 김규중회장, 체리벨리사
아시아담당 말콤 등과 종오리 개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오리 수입 및 개량을 위해 논의된 내용 중
종오리 개량과 쿼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위주로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김규중회장 : 국내 종오리 개량을 위해 시
간을 내주신 축산경영과 조병임 사무관과 영국
에서 방문해 주신 말콤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오리 개량에 대한 정
부의 정책에 대한 사항을 듣고 협회의 종오리
개량 추진과정과 영국육종회사의 이해를 통해
국내 종오리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의 소득을 높
이고 나아가 국내 오리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누시고 협회의 종오리 개량 추진사
항을 보고하고 농림부의 정책의지와 영국의 종
오리 공급상황등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말콤 : 우선 바쁜 시간을 내주신 농림부 관계자와 협회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리벨리사는 20년전부터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시장을 잘알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오리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국 오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김규중회장 :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오리 산업은 새끼생산을 위한 종오리 개량 이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업용 오리가 새끼생산에 이용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장의 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항시 과잉 생산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협회는 종오리 개량을 통한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오리 개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종오리 개량 사업의 핵심은 1차적으로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농장은 반드시 생산성이 높은 PS 종오리를 이용하여 새끼오리를 생산하고 PS 종오리는 능력을 검정하여 생산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부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또 2차적으로는 생산되는 종오리의 전체 사육물량을 업계 자율적인 방향으로 종오리 사육 쿼터제를 시행하여 생산수급 조절을 통한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종오리 사육농장 대부분의 합의하에 체리벨리사의 종오리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종오리 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대부분의 종오리가 PS로 교체되고 내년부터는 제도적인 시행

에 의해 명실 상부한 종오리 개량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병임사무관 : 먼저 종오리 쿼터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육계산업은 지난 '01년 이후 생산과잉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계열화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부 계열화업체의 부도와 대부분의 계열화업체들이 부도 직전으로 몰리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생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정부는 원종오리를 사육하는 3개 농장과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차의 회의를 거쳐 지난 '03년 11월 육계사상 처음으로 D라인 기준으로 9만4천수의 육용종계 사육 쿼터물량을 정하였고 이를 초과한 물량은 정부자금을 통해 도태 처리하여 쿼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산란계는 업계 스스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입회를 통해 쿼터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산란계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쿼터물량은 41만8천수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종계 쿼터제 시행결과 양계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발생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육계 및 계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최대의 경기호황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육계 및 산란계 농장의 사육관련 시설은 오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으나 경기불황이 이어지면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개선 등 재 투자 여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리업계는 양계업계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전체적인 산업발전 역시 늦다. 오리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한다.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과잉의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쿼터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리업계의 종오리 사육쿼터제 시행은 지난 '03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총론에는 전 업계가 찬성하고 있다. 모든 산업은 시장원리대로 가야하고 정부는 이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육계업계가 그랬듯이 계열화업체는 시장규모를 키우는데 역점을 두다보면 생산과잉의 원인이 되고 생산과잉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계열업체는 이를 농가에 전가하다 견디지 못하면 도산하여 관련업계 및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오리업계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오리분야에 대한 쿼터제 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오리는 생산주기가 짧아 자기 정보를 감추고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버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엉터리 보고가 많아 안 된다.

금년부터 양계업계는 생산에 따른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부화장, 종계장의 사육량, 생산량 등 모든 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 된다. 모든 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

되면 생산수급이 용이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잘하는 업체는 도움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오리업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종오리 쿼터제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위해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다.

육용종계 역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시 업체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쿼터제 시행이후 경기가 크게 호전되면서 생산업체는 사육물량을 줄이려 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늘리자고 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말콤 : 영국 체리벨리사는 지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주 거래처인 화인코리아 사태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지난해 6월 한국 방문 시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종오리 개량공급을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확신과 이는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체계라고 생각하여 7월 가격조정과 12월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협회를 통한 종오리 공급에 계열업체 및 농장들의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체리벨리사는 일반 농장 및 계열화업체 등 전 거래업체가 중요하고 생산과 가공 소비 둘다 중요하며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체리벨리사는 현재 종오리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계약기준에 의해 갈 것이다. 또 종오리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

국 종오리 사육업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문제들이 9월 이전에 해결되어 재조정되면 체리벨리사와 협회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지난주 사육관련 기술자가 농가를 방문하여 기술 지도를 하였는데 이후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조병임사무관 : 닭과 오리는 생산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우선 오리는 종축으로 등록 되지 않아 상업용 오리의 종축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육계업계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상업용 닭을 이용한 병아리 생산은 상상하지 못한다. 이는 PS에서 생산되는 병아리와 상업용 종계(F1)에서 생산되는 육계의 품질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오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말콤 : 영국의 PS와 상업용 종오리에서 생산되는 육용오리의 품질 역시 차이가 크다. 생산성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도 있다.

▲조병임사무관 : 육계역시 쿼터제 시행 당시 말이 많았으나 이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 욕심을 위해 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강력히 제제 되어야 하며 업계 발전과 쿼터제의 조기 시행을 위해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쿼터물량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협회가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 도 잘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

▲김규중회장 : 협회는 모든 종오리 공급에 있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불만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 합의를 통해 일을 추진해 가고 있다. 계열화업체 및 부화장들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오리 개량, 종축공급 및 종오리 쿼터제 시행등 업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부화장, 및 계열화업체 합의서에 합의하지 않고 협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협회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만일 해당관련 업계가 자기 욕심만을 고집한다면 현재와 같은 생산구조를 2-3년 끌고 가서 종전과 같은 불황을 재 경험한 후에 시행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것은 업계의 몫이라고 생각하나 업계의 현명한 합의를 기대하며 체리벨리사 역시 한국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동반자적 차원에서 종오리개량 및 공급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장시간 시간을 내주신 농림부, 영국체리벨리사, 구디스엔터프라이즈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담회를 마칩니다.